

싱가포르 창업생태계 연구: Isenberg(2010) 프레임워크의 지역적 변용을 통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김소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과정)**

조민경 (DB 금융투자주주)***

이무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 문 요 약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파괴적인 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과 새로운 기술에의 개방을 기반으로 기회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그 자체가 아닌,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의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스타트업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이 행해진 거점 지역에 조성된 환경이 중요한데, 이러한 물질적, 비물질적 환경 요인들은 '창업생태계'라는 단어로 포괄되어 일컬어진다. 이러한 지역 중점의 창업생태계 연구는 해당 지역 내의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새로운 벤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본 연구는 창업환경 및 기업 환경 평가에 있어 아시아 국가 1,2위에 꾸준히 언급되는 싱가포르를 지역적 맥락으로 설정하여, 현지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생태계 참여자들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창업생태계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Isenberg(2010)가 제시한 창업생태계의 6가지 요소-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적자원, 시장-가 창업생태계 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잘 포괄한다는 점에서 창업생태계를 분석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임을 대전제로 두고, 연구의 표적 지역인 싱가포르에 적합하도록 일부 요소들에 집중된 지역적 변용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싱가포르의 정치적 특성상 정책이라는 요소가 금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정책의 기초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대학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싱가포르의 창업 인프라 내에서 형성되는 기업가 네트워크와 글로벌 연결성이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책(Policy), 문화(Culture), 그리고 시장(Market)이라는 요소들을 더욱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창업생태계 요소들의 내부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필수적이므로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반구조화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는 싱가포르 창업생태계의 정책, 문화, 시장 요소에 집중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현지의 창업생태계 현황을 조사하였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스타트업 관련 규제, 대학의 역할, 창업 인프라 측면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진행될 창업생태계 연구뿐만 아니라, 창업 인프라의 조성,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대학의 창업 교육 방향성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창업생태계, 창업정책, 창업문화, 창업인프라, 싱가포르창업생태계

1. 서론

오늘날 창업, 특히 스타트업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기업 활동은 정체되어가는 글로벌 경제를 성장시킬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각기 다른 양상으로 자국민의 스타트업 창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증가하는 스타트업에의 관심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지원은 거대 IT 공룡으로 대표되는 스타트업 성공신화들을 만나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9년 정부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의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가 경영학자들 뿐만 아니라 정책학 연구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초기 단계의 경영 활동은 경제 전체에서 가장 생산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며(Dana, 1995; Livingstone, 2007),

* 이 논문은 2019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창업혁신 프로그램 (YVIP)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uGET 프로젝트-해외 선진 창업생태계 연구'의 결과물임

** 주저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과정, sarahkim_15@naver.com

*** 공동저자, DB금융투자, rosaacho@gmail.com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mooweon@yonsei.ac.kr

· 투고일: 2020-01-07 · 수정일: 2020-03-11 · 게재확정일: 2020-04-06

해당 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경우,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 제공, 조세, 그리고 혁신의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Weiblen & Chesbrough, 2015). 경영학자들은 주로 조직학, 기업이 정신, 그리고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창업을 연구하는데 각 분야에 따라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방식과 초점을 두는 요소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Salamzadeh & Kawamorita, 2017).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스타트업이라는 기업 형태가 기성 기업에 비하여 덜 조직적이며, 인력과 자원의 측면에서 부족한 양상을 띠며 확률이 높으며 결과적으로는 높은 실패 확률, 즉 낮은 생존율을 가진다는 것이다(Stemler, 2013).

스타트업의 생존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스타트업의 외부환경이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신생 기업 및 스타트업의 생존은 자사가 속한 산업 자체와 시장의 발달 정도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Agarwal & Gort, 1996). Kauffman & Wang(2001)은 또한 스타트업이 속한 시장 자체의 발달 단계가 초기에 가까울수록 해당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위험비(hazard rates)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Bandera & Thomas(2018)는 사회적 자본에의 접근성과 이를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스타트업의 생존율과 가지는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듯 스타트업이 생존하여 성장의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창업이 행해진 거점 지역에 조성된 환경이 중요한데, 이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 환경은 ‘창업생태계’라는 단어로 포괄되어 일컬어진다. ‘창업생태계’ 연구는 또한 기업가 활동, 혹은 기업가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과 그 지역의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리 잡았다(Spigel, 2013; 2015). 하지만, 선진적인 창업생태계의 모델을 지역 특유의 경제적, 문화적 특징들에 대한 고려 없이 차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으며(Harrison & Leitch, 2010), 해당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각각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의존하면서 생태계를 재구성해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Motoyama & Watkins, 2014)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성공적인 창업생태계의 구축은 기업가 활동의 양적 지표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내의 창업생태계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새로운 벤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생태계 연구는 혁신적인 기업가들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적인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 활동의 지역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에 가깝다(Spigel, 2015).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행해진 창업생태계 요소에 대한 지역연구로는 캐나다의 워털루(Waterloo) 지역과 캘거리(Calgary) 지역의 창업생태계 비교연구(Spigel, 2015), 이란의 기업가 커뮤니티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한 연구(Salamzadeh & Kawamorita, 2017), 인도의 방갈로르(Bangalore)와 하이데라바드(Hyderabad) 지역의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생태계 비교연구(Bala Subrahmanya, 2017),

한국과 중국 청두의 창업생태계 비교연구(곽혜진·이무원, 2018), 그리고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혁신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 정책의 역할에 대한 연구(Cheah et al., 2016)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적 맥락으로 선택한 싱가포르는 아시아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이며 기업 환경평가(Doing Business Report)에서 4년 연속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IFC)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 환경평가는 전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창업의 용이성 등을 평가한 지표이다. 뿐만 아니라, 창업환경 및 기업 환경에 대한 평가에 있어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시아 국가 1,2위에 꾸준히 언급되는 만큼 싱가포르 창업생태계의 선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senberg(2010)가 제시한 창업생태계의 6가지 요소-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적자원, 시장-가 창업생태계를 분석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임을 대전제로 두고, 지리적 표본인 싱가포르의 지역성에 입각하여 3가지 요소-정책, 문화, 시장-에 중점을 둔 독자적 모델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이 요소들 간의 상호연계성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른 요소들인 금융, 지원, 인적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를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에 따른 행정정책 중심으로 바라본 선행연구(Cheah et al., 2016)의 논의를 발전시켜 정책이 문화와 시장이라는 요소들에 미친 영향과 궁극적으로 이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이룩된 싱가포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함이다.

창업생태계 요소들의 내부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면적인 정책 분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책 대상자에 속하는 창업생태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현지에서 직접 방문하여 대학교를 비롯한 창업보육기관 종사자, 현지 스타트업 종사자 및 창업자와 뿐만 아니라 현지 학생들과의 반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Isenberg(2010) 프레임워크를 지역적으로 변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육성 기조를 바탕으로 문화적 배경과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금융, 지원, 인적자원 측면의 요소들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싱가포르 창업생태계의 요소들 및 이에 영향을 받는 생태계 참여자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설립되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하고 풍부한 자본이 스타트업의 생애주기(life cycle) 각 단계에 유기적이고 적절히 개입하는 건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선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 문화, 시장 요소에 집중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의 창업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본 연구는 또한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스타트업 관련 규제, 대학의 역할, 창업 인프라, 다국적 협력 측면에서 생태계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의 도약·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인 만큼,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 마련, 대학의 창업 교육 방향성 설정, 창업 인프라의 구성에 유의미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기업가 활동 · 창업생태계 관련 선행연구

2.1 기업가 활동 관련 주체에 대한 선행 연구

‘창업 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라는 개념은 경영학 연구에 있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벤처와 기업가적 행위를 생태계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기업가의 활동 혹은 기업가적 행위에 있어 기업가 개인만큼이나 그 주변의 다른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Dodd & Anderson(2007)는 특정 시기 이전까지는 기업가의 활동(entrepreneurship)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기업가 개인의 성격 혹은 특성이 차용되었는데, 이후 개인적 차원을 넘어 기업가적 활동(entrepreneurship process)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해당 주제는 Malecki(1997)가 기업가의 주변에서 그들을 보조하는 동시에 그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맥락(social and economic context)을 개념화하고 이를 Neck et al.(2004)이 지역적, 환경적 맥락에 관한 논의로 연결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Acs et al.(2014)는 기업가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의 진행이 개인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적, 환경적 맥락(regional context)이 해당 사업 진행의 질과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기업가와 기업체가 속한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이 관련 비즈니스 생태계의 주요 주체들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개별 기업이 활동에의 관련 주체에 대한 논의는 기업가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관점에서 그가 속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지역적 맥락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시적 관점으로 확대되었다.

2.2 창업생태계에 대한 선행 연구

Entrepreneurial ecosystem 혹은 startup ecosystem으로 불리는 “창업생태계”는 창업자, 대학·멘토·인큐베이팅 등 창업 지원기관, 엔젤·벤처투자자·투자은행 등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생물학 맥락에서의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출현·확장·성숙·자기재생 또는 쇠퇴의 과정이 나타나면서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는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대기, 2014). 본래 생태계(ecosystem)란 구성원들이 상호 작용하는 물리적 환

경 측면과 서식지를 차지하는 유기체의 체계로 정의되는 생물학 측면의 용어지만 1990년대 이후 산업생태계, 혁신생태계 개념을 다루는 경제학 분야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Moore(1996)은 비즈니스생태계(ecosystems of business) 개념을 도입하며 스타트업 생태계(ecosystems for start-ups)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수행한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5개년 계획”연구에서 최초로 네트워크로서의 벤처를 강조하며 벤처생태계 개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미성, 2019). 고정민·김정호(2000)은 벤처기업을 생산자로, 벤처 캐피털을 소비자, 회수시장을 분해자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벤처생태계가 순환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둘러싼 무기 환경에는 법, 제도 등의 벤처 관련 인프라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대용·김영수(2000)는 창업생태계를 창업기업, 벤처 캐피털, 회수시장을 포함하는 핵심요소, 법률, 대학, 연구소, 벤처보육센터, 대기업 등의 기반요소, 그리고 정부, 해외 벤처라는 외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Cohen(2006)는 한 지역의 창업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적인 주체들 혹은 구성요소들이 스타트업을 통해 생태계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한다고 보았다. 벤처생태계 자체의 개념 설정과 참여자의 역할 정의 등에 중점을 둔 연구뿐만 아니라, 혁신클러스터와 기업가 활동에 대한 연구(Almeida & Kogut, 1999; Delgado et al., 2010; Porter, 2000), 네트워크 관점의 연구에서도 창업생태계 개념이 다루어졌다(Sorenson & Stuart, 2001; Stuart & Sorenson, 2003). 이러한 연구 흐름은 Isenberg(2010)에 의해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역 생태계 연구로 본격화되었다(김현창, 2018). 미국 Babson College의 The Babson Entrepreneurship Ecosystem Program(BEEP)의 일환으로 진행된 Isenberg(2010)의 연구는 기업 활동에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론적인 접근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체론적 접근’은 Isenberg(2010)가 말하는 특정 지역의 창업생태계에 맞닿아 있다. 해당 연구는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를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 혹은 창업 이후의 성공 가능성에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요소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Isenberg(2010)의 ‘전체론적 접근’은 정책(policy), 금융(finance), 문화(culture), 지원(supports), 인적자원(human capital), 시장(markets)의 6가지를 창업생태계의 주요 요소로 제시한다. 여기서 ‘정책’은 정부 규제와 지원, ‘금융’은 기업가들이 이용 가능한 재정 서비스의 모든 영역, ‘문화’는 사회적 규범과 사람들에게 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성공 스토리, ‘지원’은 민간기관, 인프라, 전문가 지원, ‘시장’은 창업가 네트워크와 고객, 그리고 ‘인적자원’은 교육 시스템과 숙련된 전문 인력을 가리킨다. <표 1>은 김현창(2018)이 정리한 Isenberg(2010) 프레임워크다.

<표1> Isenberg(2010)이 정의한 창업생태계의 주요 요소

| 영역 | 세부영역 | 내용 |
|----------------------|--------|--|
| 정책 (Policy) | 정부 | 재정 지원(예, R&D 지원, 스타트업펀드), 창업친화적 규제(예, 파산, 계약, 특허권) |
| 금융 (Finance) | 금융자본 | 엔젤투자, 벤처캐피탈(VC), 공공자본시장 |
| 문화 (Culture) | 성공스토리 | 창업 성공스토리 전파, 기업가의 사회적 위상 |
| | 사회적 규범 | 위험, 실수, 실패에 대한 관용, 혁신, 창의성, 실험 |
| 지원 (Supports) | 민간기관 | 기업가정신 촉진, 비즈니스 플랜 경연, 컨퍼런스 |
| | 지원 전문가 | 법률, 회계, 투자자, 기술 전문가, 어드바이저 |
| | 인프라 | 클러스터, 교통, 인큐베이션 센터 |
| 인적자원 (Human Capital) | 노동력 | 숙련/비숙련 근로자, 연쇄 창업자 |
| | 교육기관 | 창업자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교육, 학위과정 |
| 시장 (Markets) | 초기 고객 | 얼리어답터, 제품화에 대한 전문지식, 초기 리뷰, 유통채널 |
| | 네트워크 | 기업가 네트워크, 다국적 협력 |

앞서 언급했듯 지역 중점의 창업생태계 논의는 Isenberg(2010)에 의해 본격화되었고 이는 창업을 활성화에 대해 커뮤니티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는 기업가(창업자)에 대한 생태계 참여자들의 감정의 측면(culture)과 금전적 측면(finance)의 보조를 비롯하여 창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 정책(policy), 교육(human capital), 그리고 경제적 환경을 포괄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창업생태계의 구축과 창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사례연구가 하나의 학문적 시류로 자리 잡았다(Spigel & Harrison, 2018).

연구자들은 창업생태계의 주요 요소를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Isenberg의 2010년 연구에서 제시된 6개 요소의 일부가 가감된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Mason & Brown(2014)은 창업생태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특정 생태계 내의 기업가적 행위주체(entrepreneurial actor), 자원 공급자(resource provider), 연결자(entrepreneurial connector)에 대한 동시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Spiegel(2015)은 창업 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을 크게 문화적(cultural attributes), 사회적(social attributes), 물리적 특성(material attributes)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화적 특성은 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지원적 문화(supportive culture), 기업가 정신의 역사(histories of entrepreneurship)를 포함하며, 사회적 특성은 능력있는 인재의 확보(worker talent), 투자 자본(investment capital), 네트워크(networks), 멘토와 롤모델(mentors and role models)로 구성된다. 또한 물리적 특성의 경

우, 정책과 거버넌스(policy and governance), 대학(universities),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s), 물리적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 그리고 시장의 개방성(open markets)를 포함한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의 구축에 있어 공적 부문, 시장, 인적자원(교육), 그리고 기술(R&D역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학문적 컨센서스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III.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조사 배경

3.1 Isenberg(2010) 지역적 변용 모델 구축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창업생태계를 바라보는 데에 있어 Isenberg(2010)의 전체론적인 접근방법을 차용하였다. 그의 연구가 지역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창업생태계 논의를 활성화 시켰다는 점, Isenberg(2010)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6가지의 요소들이 창업생태계 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잘 포괄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개별 국가나 도시들의 창업생태계를 평가하는 척도로 차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창업 생태계를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표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창업생태계를 분석하는 데에 해당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학술적 비약이 존재한다. Isenberg의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 창업생태계 모델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기에, 동아시아권의 싱가포르 사회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Spiegel(2015)가 확인한 바와 같이, 각 지역의 창업생태계의 요소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어떤 요소가 상부구조에 위치하여 하부구조에 위치한 다른 요소를 지지하는지와 같은 결합의 양상이 지역 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Isenberg 프레임워크를 차용하되, 연구의 표적 지역인 싱가포르에 적합하도록 일부 요소들에 집중한 지역적 변용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싱가포르의 정치적 특성상 정책이라는 요소가 금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정책의 기조가 기업이 정신과 관련된 대학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싱가포르의 창업 인프라 내에서 형성되는 기업가 네트워크와 글로벌 연결성이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책(Policy), 문화(Culture), 그리고 시장(Market)이라는 요소들을 더욱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세 요소와 다른 요소들이 가지는 관계성과 관련하여 한국형 창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1.1 정책(Policy)

서구의 산업화와 구분하여, 일본을 위시한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의 경제 개발 및 산업화 과정은 ‘동아시아 개발 모형’의 일부로 분류된 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국의 기업가적 역량 또한 그에 따라서 이뤄졌다는 가설이 지배

적이다. 가령, 공산국가인 중국이나 과거 사회주의를 표방하였던 인도의 경우 정책에 의한 기업의 설립이나 지배구조에 대한 제약이 많았음을 고려하면 정치적 배경이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었다. 싱가포르의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단원제 공화국이라는 하지만, 국가 성립 이후 지금까지 일당독재 형태의 정치체제가 유지되어 오고 있고, ‘리관유’ 부자가 반세기 넘게 나라를 통치해오는 등 정치 및 언론 분야의 자유도가 낮다고 여겨지고 있어 창업생태계를 분석하는 데에 정치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2017년 싱가포르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포스트-리관유 시대’의 싱가포르 성장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을 정도로 집권 정당이 가진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강윤희·최인아, 2018)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으로 제조업이나 핀테크와 같은 산업에서의 혁신이 진흥되는 등 창업친화적 규제를 가진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세하게는 2014년부터 시행된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정책으로 본격적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Founder’, ‘Tech’, ‘Equity’ 등 지원내용과 분야를 막론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 역시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에 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Isenberg의 6 요소 중 ‘정책’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3.1.2 문화(Culture)

기업가적 활동은 기업가 개인이 속한 문화권에서의 ‘기업가의 사회적 위상’이나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그 정도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창업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대학의 역할이나 지원사업과 같은 물질적 속성(material attribute)은 네트워크나 투자환경과 같은 사회적 속성(social attribute)을 강화하고, 혁신에 관한 문화적 태도에도 큰 영향을 준다(Spigel, 2015). 특히,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에서, 성공적 역할모델이나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과 같은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성취욕구와 창업 선호도와 같은 개인 특성은 의해 창업의도에 큰 영향을 준다(조영조, 2017). 특히, 청년 창업 의지에 있어서 대학의 창업지원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에 따라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대학 발 창업 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학제적 갈등, 이론 및 현실의 상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백서인, 2017). Korea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TIPS) 프로그램을 통해 발간된 2015 글로벌 창업동향 보고서(창업진흥원, 2015)에 따르면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우 아시아의 선도적인 연구중심대학들이 진행하는 창업지원활동을 다수 보유하며 이를

자국 기술창업의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 확보에의 기여로 여긴다. 또한, 싱가포르가 다민족 국가로서 가지는 문화적 다양성은 싱가포르만의 독자적인 다문화 교육방식을 구축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개개인의 성격, 나아가 그들의 기업가적 행동양상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이윤정, 2014).

3.1.3 시장(Market)

Bandera & Thomas(2018)에 의하면, 스타트업의 생존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뒷받침되는 창업생태계가 필요한데, 싱가포르의 Blk71과 같은 기술창업 클러스터에 대학, 산업, 그리고 정부기관이 연계되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초기 유통채널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는 등 창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형성되는 기업가 네트워크는 투자 유치(Banerji & Reimer, 2019) 및 기회의 발견(Shu et al., 2018)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스타트업의 성공에 기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연결성 또한 창업생태계의 활성화 요인으로 여겨진다. 특히, 싱가포르의 대학은 아시아 지역 인큐베이터와의 협력을 맺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고, 정부는 아세안 스타트업 메가 클러스터인 TIMS(Thailand, Indonesia, Malaysia, Singapore)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해외 자본 확보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이는 500만 인구에 불과한 자국 내국시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생태계의 혁신적 기술, 아이디어, 인력, 자금 등 각종 자원과의 연결을 통해 더욱 빠른 혁신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김성욱 외, 2019).

3.2 연구조사 배경

3.2.1 싱가포르 창업생태계 현황

연구 조사 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연구조사의 배경이 되는 싱가포르의 창업생태계 현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가 선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진적인 기업 환경이 자리한다.

싱가포르가 오랜 시간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인정받는 데에 기여한 선진 기업 환경의 요소들로는 낮은 법인세율 및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 조직적인 산업 클러스터 보유,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기업 설립의 용이함, 우수한 인재, 대규모 글로벌 자본시장의 구축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을 바탕으로 해외 자본과 기업들을 유치해온 싱가포르는 글로벌 연결성을 통해 500만 인구가 가지는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해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4년부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을 국가 목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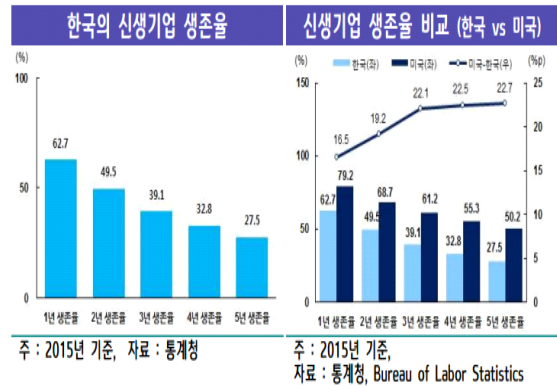
로 선포하고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기저에는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해 온 싱가포르의 산업 특성상 존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자국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세계은행이 각국의 경영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20년 창업(Starting a Business) 부문에서 4위를 차지해 6위였던 2019년 대비 더욱 발전한 모습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20년의 Doing Business 보고서는 창업을 하는 데에 평균 1.5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2019년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R&D 지출이 GDP대비 1%이상이라는 점, 혁신적인 기업프로젝트와 리서치를 위한 정부예산이 19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이 싱가포르가 가지는 강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주도형 4차 산업혁명에의 기조는 싱가포르가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핀테크 분야 뿐 만 아니라, ICT, IoT 등 다양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의 활발한 설립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크게 창업 인프라 구축, 창업 자본 지원, 창업 문화 조성으로 나뉘며 싱가포르가 기존에 보유하던 선진 기업 환경요소들과 결합되어 시너지를 내고 있다.

3.2.2 한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에 의하면, 세계형 창업의 감소와 기회형 창업의 증가에 따라 한국의 창업생태계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2018년을 기점으로 벤처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두 개에 불과하던 국산 유니콘 기업이 2020년 3월 기준 11개로 증가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한국 창업생태계의 질적인 환경 전반이 개선되었다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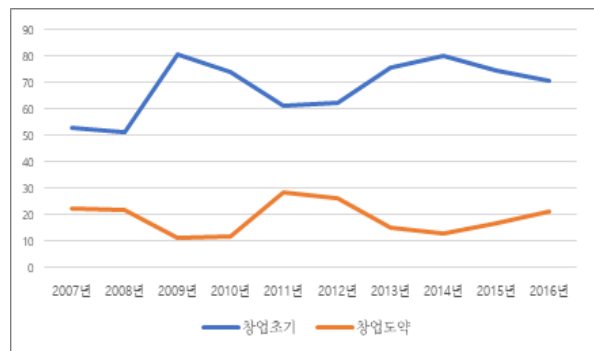
2017년 관계부처가 발행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의하면, 이는 창업생태계의 양적인 지표(신설법인 수, 벤처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질적인 지표가 되는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 설립한 벤처기업 비중은 2007년 12.4%에서 2018년 7월 전체의 8.2%로 줄었고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 기업 비중도 2015년 43.8%에서 2017년 43.3%로 소폭 감소했다. 기술 기반 중소·창업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세계형 창업보다 생존율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IBK기업은행의 ‘해외 혁신창업 생태계 연구’에서 발췌한 <그림 1>은 한국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18).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는 한국 창업생태계에서의 세계형 창업의 높은 비중뿐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창업 지원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해석 또한 존재한다.



출처: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18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신생기업 생존율 비교

나성현·김민식(2015)은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성장단계별 예산 비중을 <그림 2>와 같이 분석하여 창업 준비와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된 정부의 창업 지원 때문에 성장/도약 단계의 스타트업이 생존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관계부처 합동, 2017
 <그림 2> 창업 지원사업 성장단계별 예산 비중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 성장 및 도약기의 장벽을 넘어 생존한다고 해도 그 다음의 단계로 진전하여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국내의 벤처 캐피탈(VC) 관련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고 코스닥, M&A 등의 회수시장이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라 모험자본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스타트업의 출구 전략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서는 한국에서의 투자금 회수가 주로 기업 공개(IPO)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 코스닥 시장에서 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까지 소요되는 평균적인 기간이 11.4년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리하자면, 법에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는 잠재적 불법으로 취급하는 창업 초기의 정부 규제, 불연속적인 창업지원, 회수시장의 취약성이라는 환경적 요인은 글로벌 연결성이 약한 대다수 한국 스타트업 내부적 요인과 결합하여 신생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비롯한 창업생태계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IV. 연구조사 주제와 연구 방법

4.1 연구 주제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창업생태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정책, 문화, 시장 세 가지 요인에 집중한 독자적 모델을 바탕으로, 각 요소가 어떻게 현지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에 더하여 한국 창업생태계의 방향성을 각 요소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Isenberg가 제시한 창업생태계를 이루는 6가지 요소들 모두가 중요함을 인정하는 한편, 싱가포르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그중 특히 3가지의 요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건전한 창업생태계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다양성’이 학교를 통해서 발전된다는 학생벤처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정부의 규제에 맞춰 창업 분야를 설정하고 스타트업을 구상하는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학교 창업지원단의 인큐베이팅 단계까지의 과정, 즉 ‘학교를 통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후에는 시장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나 민간기금의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스타트업의 성장, 인수합병과 IPO등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결과적으로는 벤처생태계로 채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를 ‘벤처 생애주기’로 보았다. 이 벤처 생애주기에서 정책, 문화, 시장이라는 세 요소는 각각 정책당국, 학교, 투자환경이라는 주요한 세 주체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한다.

4.2 연구 대상자

싱가포르의 창업생태계를 분석하는 동시에 한국에의 제언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 크게 정책당국의 규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서의 학교의 역할,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환경의 파악이라는 목적에 맞춰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스타트업 인터뷰 대상자는 학교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한 학생 창업가와 관련 경력을 보유한 일반 창업가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학생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세 대학-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난양공과대학교(NTU),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MU)-을 방문해 각 학교의 특색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 비교하였다. 한국 대학으로는 연세대학교를 선정하여 창업지원단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두 가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의 창업 인프라에 대한 조사는 융합형 창업 런치페드의 중심인 ‘Blk71’에의 방문을 통해 알아보았으나, 한국의 창업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민간중심의 Google Campus Seoul, 정부가 운영하는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융합형의 TIPS Town 세 곳을 방문해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민

간 기업 종사자들과 현지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창업에 대한 인식이나 그들이 인식하는 기회 요소 등을 파악하였다.

<표 2> 질적 연구 대상자 구성

| 대상 | 국적 | 소속 | 비고 |
|----|------|-----------|--------------------------------------|
| A | 싱가포르 | 정부 | SmartNation 정책관련자 |
| B | 한국 | 정부 | 규제 샌드박스 관련 |
| C | 싱가포르 | 학교 (교육기관) | 창업 인큐베이팅팀, 학생 벤처 담당자 포함 |
| D | 싱가포르 | 학교 (교육기관) | 실험실 창업 관련 |
| E | 싱가포르 | 학교 (교육기관) | 실험실 창업과 학교 창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
| F | 한국 | 학교 (교육기관) | 대학교 창업지원단 인터뷰 및 Lean Startup 기술창업 관련 |
| G | 싱가포르 | 스타트업 | 대학교의 창업공간 입주기업 |
| H | 싱가포르 | 스타트업 | 대학교의 창업공간 입주기업 |
| I | 싱가포르 | 스타트업 | Blk71 입주기업(대학교의 창업지원) |
| J | 싱가포르 | 학생 | |
| K | 한국 | 스타트업 | 대학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
| L | 한국 | 스타트업 | 학생 창업가 |
| M | 한국 | 스타트업 | 대학교의 창업공간 입주기업 (외부 기업에 대한 대학 창업지원) |
| N | 한국 | 스타트업 | |
| O | 한국 | 학생 | 대학교 LeanStartup 프로그램 참가자 |
| P | 싱가포르 | 민간기업 | 일부계 마케터 |
| Q | 싱가포르 | 민간기업 | 글로벌 |
| R | 싱가포르 | 민간기업 | 개인사업 |
| S | 싱가포르 | 민간 인큐베이터 | 글로벌 인큐베이터 소속 |
| T | 싱가포르 | 창업 인프라 | 정부, 민간, 대학 융합형 |
| U | 한국 | 창업 인프라 | 글로벌 민간 인큐베이터 소속 |
| V | 한국 | 창업 인프라 | 정부 기관 산하 |
| W | 한국 | 창업 인프라 | 정부, 민간 |

4.3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질문 구성

창업생태계 요소들의 내부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창업생태계 내의 선순환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면적인 정책 분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책 대상자에 속하는 창업생태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설문지를 구성함에 있어, 실제 창업가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는 대학생 창업가와 일반 창업가에 따라 질문을 달리하였고, 학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은 학교별 지원 방식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였다. 또한, 창업 인프라의 운영에 대한 설문은 방문 견학 및 실무자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국내와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섭외해 창업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벤처 캐피털(VC) 등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았다. 모든 설문은 반구조적 면접의 형태로 진행되어, 중요한 질문은 면접 전 구조화해놓되, 그 외의 질문은 면접이 진행됨에 따라 면접자가 융통성을 가지며 제시하였다.

<표 3> 질적 연구 설문지

| 분류 | 질문 | 비고 |
|---------------|--|--|
| 창업 | 창업 과정에서 받은 정책적 지원이 있는가? | 학생 창업가의 경우 창업 과정에서 받은 학교의 지원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함 |
| | 해당 분야에서 창업을 시작한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가? | |
| | 창업가에게 필요한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 | |
| | 창업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 |
| 시장 | Singapore is so called as 'advanced ecosystem for startups'. How do you think of this reputation and what kind of factors contributed to this? |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투자환경과 특히 벤처 투자환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민간기업, 대학, 민간 인큐베이터 등에 따라 추가 질문이 이루어짐 |
| | To promote entrepreneur mindset (entrepreneurship), which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For example, education in universities, support of the policy, broadened sights toward globalism, ...) | |
| | Do you have any advice for Korean startup ecosystem or venture environment to promote M&A? | |
| | In fund collection period of startups, can you tell us the main role of VCs? I think that VC is not that deeply involved in the early stages of startups, are there any specific standards that you decide to invest in startups? | |
| | VC가 싱가포르에서 초기 개발 단계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한국처럼 어느 정도 성장된 기업 위주로만 이뤄지는지, 선진 창업생태계인 싱가포르에서는 VC가 단계별로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가? | |
| 문화 (학교의 창업지원) | How did you come up with the idea of student venture and does this program really result in promoting students to work in venture careers? | 해당 학교별 창업 지원 정책에 따라 다른 질문을 구성하였고,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각 소속 기관별 창업지원 목표나 비전의 차이에 따라 추가적 인터뷰를 진행함 |
| | As a startup incubator, what kind of difficulties do the students suffer while founding startups? | |
| | As Universities have resources such as professors, the professionals, students with ideas, and ability to function as a platform between them, we thought it's obvious that university should be the core of startup ecosystem. What your opinion on this? | |
| | We heard the term 'Kiasu', which means fear of being failed or lagged. We believe that those cultural background can be a barrier to students who are potentially be a startup founders.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issue and how university is dealing with this in present? | |
| | NUS is currently doing lots of collaboration with oversea universities pursuing global connectedness, and helping student ventures enter the global market. We are curious how those cooperation activities among universities actually helps those market entries. Can you give some examples? | |
| 정책 (정책당국의 규제) | In Korea, 'Regulation Sandbox' is recently resolved. This act is about releasing regulations regarding high-tech industries and innovative businesses to ease them entering markets. There is controversy related to this issue, because there is no obvious standard or method of deregulation yet. What's your opinion towards the ways university can impact on governmental policies especially for 4th Industrial Revolution? | |

| |
|--|
| Do you think that governmental policy toward 4th Industrial Revolution called 'smart nation' is practically functioning also in startup scene? |
|--|

V. 연구조사 결과

5.1 정책

5.1.1 싱가포르 정책당국의 스타트업 관련 규제

싱가포르는 스타트업 관련 규제와 지원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고, 공공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사업 분야의 성과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특히, 싱가포르의 '핀테크 산업 규제 샌드박스'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규제에 관한 논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례이다. 산업 통상 자원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2016년 싱가포르 정부는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벤치마킹하며 탈규제 환경을 구축하였고 이에 즉각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현하여 시장 규모의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탈규제' 기조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핀테크 뿐만 아니라 폭넓은 기술 창업 분야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기조인 만큼, 규제 샌드박스 안의 기업들은 재무 건전성, 최소 납입자본, 신용등급 등의 항목에 있어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지원 금지 등 최소한의 규정만을 지키면 된다. 즉, 싱가포르는 정부가 허용 가능한 영역을 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하여 기술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이하 NUS)의 항창치예(Hang Chang Chieh) 교수에 따르면, 규제는 창업을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명확한 법칙 안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난양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이하 NTU)의 김태형 교수는 정부가 신기술을 미래의 먹거리로 선포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굉장히 오픈되어있고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나타나면 적절한 정도의 규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싱가포르의 정치 형태 특성상 존재하는 높은 정도의 '정치적 합일'이 신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에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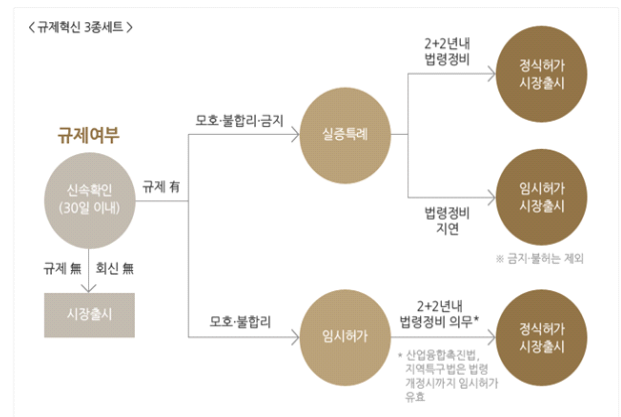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싱가포르에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라는 암묵적이고 공통적인 인식이 존재하여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 초기 단계에서의 상용화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며, 해당 기술이 문제화되는 징후들이 보이면 사후제재를 진행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는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퍼져 있는 'Try First' 모토와 일맥상통한다.

NUS 한정필 교수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이 아닌 아이디어창업이나 기술창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그 활용 가능성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 예측이 힘들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완제품이 되기 이전의 아이디어 단계, 혹은 프로토타입(prototype) 단계에서 시장에 먼저 진입한 후,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개선해 나가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이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이러한 형태의 스타트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네거티브 규제’가 필수적이다. 최대한 많은 활용 가능성이 허용되는 그러한 상태에서만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실험될 수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또한 2018년을 시작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고, 2019년 초부터 본격적인 정책 홍보와 실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 혁신 3중 세트와 소비자 보호 제도로 구성되며, 여기서 ‘규제 혁신 3중 세트’는 지원한 신사업의 기존 규제 존재 여부와 허가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신속처리’, 신사업 신청을 받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실증특례’나 시장 출시를 ‘임시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림 3>은 규제정보포털이 정리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절차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목적이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여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밝힌다. 아산나눔재단에 의하면, 실제로 2017년의 규제를 기준으로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UBER, Airbnb 등 약 60% 기업이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사업 불가 13개사, 조건부 가능 44개사, 가능 43개사) 이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된 2019년 이전까지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의 신기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지 않은 채로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접근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금융 당국은 2017년 9월 암호화폐 공개(ICO)를 구두로 사실상 금지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는 고사하고 ICO 관련 법률도 없는 상태였기에 관련 비즈니스 모델들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도하던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 혁명에 해당하는 신사업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탈규제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확보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관련 부처는 모호한 답변을 하여 사업자가 이 답변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느라 전전공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제 샌드박스의 과정에 있어서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신속한 답변’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답변을 받고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정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지원금 확보 이후에 대기업들과의 불리한 경쟁을 피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안전망을 보장한다. 이러한 선진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의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은 본인의 독창적인 기술을 경쟁력으로 무장하여 대기업에 의한 자본잠식을 당하지 않고 다양한 곳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Smart Nation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을 위해 열리는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카피캣 비즈니스 모델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엄격하고 큰 평가 기준인데, 이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증대시키기 위함일 뿐 아니라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갈취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선진 창업문화 속에서 창업가들 역시 자신의 스타트업의 차별화 요소를 아이디어의 주요 경쟁력으로 활용해 기술 창업을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VC투자자들이 카피캣 창업을 하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 역시 일어났다. 단순히 사업모델을 모방했다는 것만으로는 카피캣 창업 당사자를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으며,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아이디어 도용 및 베끼기 단속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숙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국내의 스타트업을 위한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규제정보포털

<그림 3>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절차

5.1.2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의 활성화

대기업과 같은 잠재적 인수업체들은 사업 부문 간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다. 특히, 기업형 벤처 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ists 이하 CVC)는 단순히 경제적 수익만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 비해서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모색하기에 활발한 M&A 시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들은 모회사와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CVC가 벤처 M&A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대 통신망 기업인 SingTel의 벤처 기금인 ‘SingTel Innov8’은 여타 VC처럼 투자하고 자금 회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키워서 후일 자회사의 브랜드로 안착시키고자 하거나, 브랜드를 키워 완전

인수를 목적으로 M&A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정글벤처’는 글로벌 기업인 피델리티인더내셔널과 시스코시스템즈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CVC이고, ‘버텍스벤처’는 태국 카시콘은행의 투자를 받는 CVC이다. 이러한 CVC를 통해 모 회사는 스타트업에게 노하우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반대로 스타트업은 모기업이 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냄으로써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CVC의 모기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기회 제공에 집중하기에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모기업은 CVC를 통해 스타트업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강화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CVC제도는 보유 현금이 많은 국내외 대기업들로부터 큰 규모의 펀딩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주도형 벤처투자를 가능케 하고, 따라서 후속투자 비중이 낮은 기존의 VC역할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가진다.

반면, 한국의 금융 규제 정책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의 기초가 강해 대규모 자본을 둔 대기업들이 CVC를 계열사로 두는 것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제8조에 의해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는 삼성벤처 및 두산 네오플렉스 등 지주사법을 우회하는 형태로 진행된 극소수의 CVC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벤처 지주사 개정안에서도 CVC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듯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은 한국의 대표적인 투자 족쇄로 여겨진다. 이는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의 자금을 밀어내고 있는 꼴인 셈이다. 정부는 CVC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기업이 국내 스타트업을 상대로 한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논의가 지속된 결과, 19년 10월부터 국내에서도 CVC의 대안으로서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기업성장 투자기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한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의 투자 주체 측면에서는 자금의 원천이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고 민간 자본의 참여가 낮다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 투자 규모의 측면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과 기업 당 평균투자금액이 모두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금융위원회, 2019).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벤처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투자규모가 창업초기 단계 투자규모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한정된 민간 자본의 유입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역시 BDC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BDC 설립 목적이 대기업들의 자본 유입이 아닌 ‘일반투자자들의 벤처기업 투자와 회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여전히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5.2 문화: 싱가포르 대학 창업 교육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5.2.1. 실패에 대한 인식 제고

싱가포르의 (학생)창업이 한국보다 활발하다고 해서 그들이 상대적으로 한국 대학생들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일컫는 ‘키아수(Kiasu)’라는 용어가 존재할 정도로 싱가포르 또한 보수성을 가진 사회이며 엘리트주의가 만연한 경쟁 사회이다. 싱가포르의 대학 진학률은 30%에 지나지 않아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 자체로 엘리트 계열에 속하게 된다. 현지 NTU 재학생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싱가포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싱가포르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권에 취직하는 것이 이상적인 커리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또한, 그들은 대학 입학까지의 과정에서 치열한 입시 경쟁을 겪었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여 뒤처지는 것, 혹은 주류와 다른 커리어 목표를 갖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한다. 한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실패 혹은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창업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는 한국의 대학생들과 싱가포르의 대학생들이 꼭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어느 정도 이상 극복할 때야 비로소 창업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국가 주도의 미디어 홍보와 더불어 대학교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싱가포르 대학의 전략은 학생들을 창업 성공스토리(성공신화)에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 ‘성공신화에의 노출’은 단순히 성공사례를 나열하여 전시하는 것을 넘어, 각 벤처의 성공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NUS의 창업지원단인 NUS Enterprise 건물 내부의 벽면에는 여러 학생 스타트업의 구체적인 연대기가 부착되어 있다. 이 연대기에는 특정 (학생)스타트업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만이 아닌,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낸 방법까지도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환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보다 합리적인 위험 계산(calculated risk taking)의 측면에서 창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대기의 부착뿐만 아니라, 학생 창업자를 초청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세션을 마련하거나, 학생들을 글로벌 스타트업 현장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싱가포르 대학의 창업 교육 기조이다. NUS의 한정필 교수는 “실제로 NUS의 NOC(NUS Overseas College)를 통해 실리곤 벨리, 텔아비브 등에 위치한 선진 스타트업 환경에서 인턴을 하고 귀국한 학생들 중 다수가 스타트업 커리어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이에 도전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언급했다. 또한, NUS의 창업 공간인 ‘The Hanger’에 입주한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한 학생 창업자는 이에 대하여 “NOC프로그램 이전에는 단

한번도 창업을 내 미래 커리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하지만 NUS Overseas Colleges Programme In Silicon Valley를 통해 선진적인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스스로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NOC프로그램 참가 이후 Risk Aversion(위험 회피) 성향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내가 현실적인 창업 환경을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로 학생들의 리스크(위험) 회피 성향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업 그 자체와 실패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방향성은 NUS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SMU의 창업지원기관에 해당하는 IIE(Institute of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인큐베이션 팀 시니어 매니저인 Denise Benmosche는 “학생 창업지원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창업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스타트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타트업에 종사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간접적 체험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싱가포르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스타트업에 대해 가지는 거리감을 해소하고 창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리스크)을 어느 정도 계산하여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중요한 이유는 위험감수성이 창업의도의 행동요인들인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 그리고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과 모두 높은 영향관계를 갖기 때문이다(박재성, 2018). 기업이 및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서 말하는 ‘위험감수성’의 위험은 단순한 위험(risk)이나 도박사들이 추구하는 위험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수단들을 통해 예측 가능한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의미한다(Kuratko, 2016; 박재성, 2018). 따라서 위험감수성은 위험을 감수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위험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회(opportunity)를 포착하는 성향으로 볼 수 있으며(박상용, 2004), 싱가포르의 대학들이 학생 창업의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의 방향성은 이를 증진시키기에 적합한 양상을 띠고 있다.

5.2.2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서의 학교

박재성(2018)은 창업교육의 형태 중 MakerSpace형 창업프로그램과 경연형 창업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실전형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이 합리적 위험감수 성향을 갖도록 하며 창업의도 형성에 있어 긍정적 영향작용을 가짐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학의 창업교육이 기존의 일반적 창업지식 전달형태인 강좌형 창업프로그램보다는 실전형 창업지식 교육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는데 NUS, NTU, 그리고 SMU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NUS의 Hang Chang Chieh 교수는 창업교육에 있어 대학이 자신의 전통적 역할이었던 지식 전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실제로 NUS 공과대학은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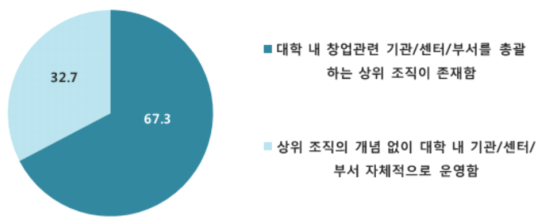
이나 기업이 정신과 관련된 과목이 아니더라도 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해당 이론과 기술 등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언급하고 해당 지식이 사회문제 혹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즉, 기술 그 자체의 학습을 넘어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기업이 정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대학의 창업교육, 그리고 교육 전반은 사회에 밀접한 형태로, 또한 매우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대학은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이 정신을 교육하는 것 이외에도 신생 학생 벤처가 투자를 받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NUS, NTU, SMU 각 대학은 NUS Enterprise, NTUitive, Business Innovations Generator(BIG) 라는 대학 단의 창업 지원기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을 ‘인큐베이터(Incubator)’로 정의한다. 각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방향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NUS Enterprise는 Hangar라는 창업 보육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즈벤처 챌린지, 소셜벤처 챌린지, 프로덕트 쇼케이스 등 다양한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과대별 창업 육성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NUS Enterprise가 이 프로그램들을 총괄하고 대학 단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총괄 기관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괄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과대간 소통이 원활하고 다양한 단과대의 창업 프로그램 학과 인력풀을 활용함에 있어 시너지가 나고 있다. NTU의 경우에는 공과대학의 특성을 살려 석사, 박사생의 딥 테크(deep-tech) 창업을 장려하며 연구실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과대학과 경영대학 학생들 간의 협력이 이뤄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SMU는 학생들이 스타트업과 투자에 대해 가지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SMU BIG의 벤처 캐피털 학회인 프로테게 벤처(Protégé ventures)는 기업들의 펀딩을 받아 펀드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 역할을 경험해보도록 하는데 이는 기존 대학이 제공하던 투자 교육이 심화된 버전이다. 동시에, VC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조사와 가치 평가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대학과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시도가 빈번해 학생 스타트업이 민간 기업을 통해 자본금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러한 중개 구조는 또한 실제 산업의 대기업과 학생 창업을 통한 벤처기업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이 발생하는 데에 기여한다. 특히 대기업이 기술기반 스타트업에게 자사가 보유한 R&D자산-회사의 사업 전략과 부합하지 않아 현재 미사용 중인 지적재산권-을 상용화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조하면서 멘토링과 비즈니스 기회를 주고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창

업 지원 기관들 중, A*STAR(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는 싱가포르 정부의 연구 지원 기관으로서, 산학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물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스핀오프 기반의 스타트업만을 독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NUS의 Hang Chang Chieh 교수는 NUS 공과대학에 존재하는 창업지원활동(Entrepreneur Development)을 소개하며 “전통적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석박사생의 스타트업이 해결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제적 경험을 통해 스타트업들은 호스팅 기업으로부터 업계 경험을 공유 받을 수 있고, 대학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조직, 경영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참여 스타트업은 사업화를 향한 뚜렷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어 후에 호스팅 기업을 통한 자본금 회수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반면, 아직 한국 대학교에서는 각 대학교의 창업 지원 기구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에 중앙집권적이고 체계적인 스타트업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림 4>는 2018년 ‘서울시 창업생태계 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대학교 창업지원 운영을 상위조직 운영 유무에 따른 활동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49개의 대학기관 중 32.7%를 차지하는 16개 대학은 상위조직의 개념 없이 대학 내 기관/센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활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총괄 개념의 상위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창업지원과 관련된 전체 연간 예산 평균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대비 높고 창업지원활동의 범위에 있어서도 더 활발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멘토링 서비스와 컨설팅 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산업진흥원, 2018
 <그림 4> 대학 창업지원기관 운영 형태

실제로 연세대학교의 창업지원은 2018년까지 정부 협력형 창업전담 기구인 ‘창업지원단’, 시장주도형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면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등교육혁신원’, 그리고 학생 창업가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장소와 네트워킹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는 ‘연세 스타트업스쿨’의 세 기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창업지원 구조의 일원화 방향성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현재는 ‘창업지원단’이라는 단일 헤드쿼터 하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업지원단으로 창업지원 트랙이 통합되면서 TIPS Town과 같은 창업 클러스터와 학교의 결합이 강화되는 등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 상위 조직으로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창업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상위 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창업지원은 기존에 존재했던 중복지원이나 분산지원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주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면서도 다양한 후속적 지원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5.3 시장

5.3.1. 스타트업 클러스터의 창업 네트워크 형성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로는 단연 ‘Blk71’을 꼽을 수 있다. Blk71은 1970년대에 형성된 산업단지 부지에 만든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2011년 NUS Enterprise, 민간기업 SingTel의 벤처 캐피탈 펀드인 SingTel Innov8, 그리고 싱가포르 미디어 개발 당국(Media Development Authority)의 주도 하에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스타트업들을 한 군데로 모으면서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월등한 창업육성단지로 뽑히기도 한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이기도 하다. 30개 이상의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과 250개 이상의 스타트업 업체가 상주하며 교류하고 있어 하나의 커다란 창업 단지(town)를 형성하고 있다. 조성 단계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듯, Blk71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정부(Media Development of Singapore), 민간기업(SingTel Innov8), 그리고 학교(NUS Enterprise)가 하나가 되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세 개의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로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건전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 역량과 기술, 투자 파트너들의 비즈니스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자본,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정부의 뒷받침 등 각 주체의 고유한 경험이 스타트업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지원한다.

Blk71에 직접 방문하였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스타트업 클러스터의 ‘네트워킹 기능’이었다. 이곳에서는 매달 20개 이상의 멘토링 세션, 비즈니스 컨설팅, 피칭세션, 산업 관련 세미나 등의 네트워킹 이벤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군데에 개방형 협력 업무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게시판을 통한 구인, 홍보, 교류 등이 활발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산업의 스타트업이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로 작용해 함께 성장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 당시 PIER71이라는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하던 정부 관계자와 인터뷰한 것에 따르면, “스타트업들이 개방형 경쟁(Open Competition)을 통해 모두 같이 성장하는 것과 창업가, 투자자, 정부 관계자들의 Open Concept 을 기조로 한 많은 대화를 통해 더 큰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Blk71라는 공동창업공간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다. 실제로 Blk71에 입주한 스타트업 RealEstate DOC의 설립자는 “구체적인 창업 아이디어와 시장의 니즈가 명확했기에 Blk71에서 이

를 실제로 구현시켜줄 개발자를 찾았고 NUS Enterprise의 멘토링 교육을 받았으며, 시장개발을 위해 Blk71의 여러 입주 스타트업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Blk71와 같은 런치패드들의 효과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당 공간에는 많은 투자사가 입주해 있어 아이디어가 발현된 이후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의 기회 역시 풍부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자금지원, 엔젤 투자, 초기 펀딩, 그리고 Series A, B 그 이후의 대규모 펀딩 등 지원의 규모와 단계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특히 Blk71에 입주해있는 JFDI(Joyful Frog Digital Incubator)는 싱가포르 최대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 지속적인 멘토링 뿐 아니라 초기 자금 확보와 법률상담, 그리고 JFDI Discover-Validate-Accelerate 의 3단계에 걸친 성장단계별 후속 펀딩을 마련해 스타트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투자 모델을 갖추고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물리적, 비물리적 창업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민간협력을 일원화,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의의가 있다. 정부의 지원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되, 판을 만들어준 다음에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싱가포르의 JFDI 펀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며, 단순히 정책적인 방향의 운영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과 민간 협력의 일원화 방향성은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팅에 민간 투자금과 정부 지원금이 균형적으로 활용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5 글로벌 창업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스타트업 관련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을 민간 투자 액수에 1:1 대응되는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액셀러레이터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매칭 펀드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물론, 개인 투자자 및 사기업 투자자는 투자 수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높고 투자 자본을 받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향도 있어 민간펀드 조성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그만큼 다양한 섹터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Sector Specific Accelerator)이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바람직한 펀드 조성 모델의 한 예라고 여겨진다. 정리하자면, 행정적인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멘토)가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자생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한국의 창업 인프라와 기업가 네트워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글 산하의 창업 공간인 ‘구글캠퍼스 서울’, 정부 주도의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민간투자주도형 정부지원의 ‘팁스타운(TIPS Town)’이라는 테헤란 벨리의 대표적인 세 공간을 선정해 살펴보았다. 각각의 공간들은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학교 BI(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각 기관이 가진 비전을 잘 살려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 또한 필요한 상태이다. 개별적으로 살

펴보면 ‘구글캠퍼스 서울’의 지향성은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이는 스타트업들이 한국의 내수 시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좋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강남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공간을 대여해주고 다양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초기 창업가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였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입주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문이나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스타트업들은 ‘팁스타운’이 제공하는 것 같이 다양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엔젤 투자자를 비롯한 투자 기회, 그리고 액셀러레이터들과의 협력 등의 네트워크 기능을 필요로 한다. 손영훈(2014)은 스타트업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사업화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Blk71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띤 공간이 ‘팁스타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Blk71의 모델을 차용하여 정부, 학교, 그리고 민간투자자들 모두와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 스타트업 허브가 조성된다면 더욱더 활발한 창업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형태의 창업 인프라가 중요한 이유는,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창업생태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5.3.2. 다국적 협력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한 참여자들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기관인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대학교 내의 스타트업과 해외 대기업간의 공동 투자를 통한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개별 대학 단위에서 SMU는 투자 환경의 글로벌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아 9개국 인큐베이터들 간의 업무협약(MOU)인 ABINET(Asian Business Incubating Network)을 공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창업 육성 센터인 Blk71은 해외 투자 기업의 지점들이 클러스터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 아시아 비영리 인큐베이터 기관 Kairos ASEAN의 Nicholas Gerald는 “스타트업의 출구 전략으로 IPO보다 M&A가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적인 M&A 대상으로 거듭나야 원활한 창업 생태계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싱가포르의 스타트업들이 이를 위해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외 진출과 글로벌 연결성을 염두에 두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국내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투 글로벌(Born to Global)’ 성향이 약하고, 대다수가

내수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 싱가포르와 같이 협소한 내수시장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년 ‘창업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창업기업 중 해외진출 여부나 계획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8.2%에 달하였다(창업진흥원, 2018). 또한, 창업지원사업의 항목 중 해외진출 항목에 대한 지원 대상기업들의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3.9로, 전체 만족도 평균(3.6)을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창업지원사업 유형들 중 해외진출과 해외 판로마케팅을 위한 지원사업의 비중은 1.0%로 매우 낮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창업지원기관들 중 네트워킹 지원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 기관은 28.7%,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겨우 23.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내 스타트업에서 나타나는 낮은 글로벌 연결성이 정책과 지원 측면에서 다국적 협력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반영한다.

또한 Startup Genome Project가 28개국 55개 도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한 ‘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에 따르면, 서울은 딥테크(Deep Tech), 게임, 애드테크(Adtech) 등 기술 부문에서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른 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영향을 받아 30위권 바깥의 Challenger(도약) 단계로 분류되었다(Startup Genome, 2017). 해당 평가의 근거로는 서울 스타트업의 외국고객 비율(14%)이 글로벌 평균(23%)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점과 이들의 외국고객 중 아시아지역 외의 고객 비율은 8%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즉, 서울로 대표된 한국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점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과 생태계의 발전이 더디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위 : N, %)

| 구분 | 전체 | 해외 수출만 함 | 현지에 단독 사업장 설립 | 현지 기업 인수합병 | 현지에 합작법인 설립 |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 | 해당사항 없음 |
|----|-----------|----------|---------------|------------|-------------|--------------|---------|
| 전체 | 2,030,987 | 1.4 | 0.1 | 0.0 | 0.0 | 0.3 | 98.2 |

출처: 창업진흥원, 2018

<그림 5> 창업기업 해외진출 여부와 유형

VI. 창업생태계의 정책, 문화, 시장 측면 시사점

창업생태계 선형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학교, 시장 등의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창업생태계에서 선순환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들로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창업 관련 문화와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서의 ‘대학’, 대학 창업 인큐베이터 기관, 창업 인프라, 투자 주체들이 협력하여 형성하는 ‘기업가 네트워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창업생태계의 개선을 위해 국내의 주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정책들에 있어 ‘네거티브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ICT규제 샌드박스에 따르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19년 1월부터 시행되어 시행 1년 만에 195건의 과제를 승인하였고, 그 중 58개의 과제가 시장에 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라는 이름 하에서 지역특구제도의 적용범위가 수도권으로만 한정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승인된 195건의 과제 중 81%에 달하는 ‘실증특례’의 경우에는 과제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최대 4년인 승인기간이 지난 이후에 만약 관련 법령이 실제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정부의 중단 요청이 있다면 시점에 상관없이 바로 사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체감되는 특례 혜택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방향성은 네거티브 규제의 기초를 반영하기 위해 실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조차 포지티브 규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방증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시적 기간 동안만 시범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준다는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가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결의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만으로는 규제 개혁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그 기초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스타트업에게 필수적인 린 스타트업(Lean Startup)방식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된 투자금을 중기 단계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스타트업과 민간 투자와의 매칭을 보다 원활히 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예컨대, 싱가포르 사례에서 활발히 나타나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CVC를 금산분리 규제의 기초에서 계속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최근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일반투자자를 통한 민간 자금 투입 독려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책자금의 적극적 역할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투자자금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다는 맥락에서 출범한 것으로 정부 역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 맥락에서의 민간 투자에 집중하는 BDC는 일반 지

주회사의 자회사나 해외대기업 산하에서 이뤄지는 CVC의 대규모 투자의 효과적 대안이 되지 못하기에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게다가, BDC의 향후 추진계획에서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이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해당 제도의 본래 목적인 ‘민간 자금 중심의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CVC형 투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지 않아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BDC의 도입을 통해 증권사와 운용사가 스타트업 투자의 적극적인 운용주체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러한 변화에 VC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 등이 해당 제도가 안고 있는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BDC제도의 도입과 활성화에 있어 일반지주회사 역시 투자법인을 별도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투자를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자체의 보완에도 힘써야 한다.

대학은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여 학생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용적인 창업교육을 제공하며, BI(Business Incubator)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청년 창업 활성화에 끼칠 수 있는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대학이 건전한 창업생태계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내의 창업 인큐베이터 기관은 중앙집권적 역할을 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단과대 간 운영사항을 공유하며 시너지를 발생시켜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싱가포르의 NUS는 ‘NUS Enterprise’라는 중앙조직을 통해서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 단과대별 특성을 반영해 각기 다른 지원 산업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각 단과대에 어울리는 기업과의 연계를 주선하고, 단과대 내에서도 석박사 과정과 학사 과정을 분리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NTU 역시 ‘NTuitive’를 통해 공과대학의 특성을 살린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 공학, 에너지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독창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들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각 단과대나 관련 기관들의 창업지원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 연계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예컨대, 국내의 연세대학교의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일원화 노력을 통해 분리되어 있던 각 단과대의 차별적인 창업지원을 조화롭게 만들고 학교 외부의 창업 보육 기관과 학교 단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초기 단계에서 중기로 성숙해가는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간의 연계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해야 하며 자교 학생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이 보유한 연구 역량을 통한 외부 스타트업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클러스터의 경우, 정책당국, 민간투자기금(운용사),

학교로 구성된 ‘융합형 모델의 창업지원 기관’이 마련되어야 하며, 액셀러레이터는 적극적인 투자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장려를 통해 기술 혁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서 가장 벤처생태계가 양적, 질적으로 발달한 도시인 서울의 경우에는 테헤란 밸리를 중심으로 창업지원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정부의 지원기관, 벤처 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들을 비롯한 민간 투자자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트업 클러스터가 단순 공간 공유에서 나아가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창업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에서와 같이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투자가 매칭 펀드를 통해 일원화 되는 등의 협력을 통해 창업의 충분한 마중물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양적 팽창에만 집중해 투자자본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클러스터 내에서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생태계 참여자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이 직면한 절차적 규제부담을 클러스터와 같은 창업생태계 현장에서 다루어주는 등 실제적인 창업 지원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 창업기업들이 공백기 없이 지속적인 투자자금을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결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측면의 제고가 필수적이다.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두고 스타트업을 스케일업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멘토링, 컨설팅 등 기업가 네트워킹 측면의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스타트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유도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 일환으로 스타트업 분야의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 규제 완화 등 인프라의 확충과 수출관련 절차적 규제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정책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Isenberg(2010)를 변용하여 지리적 표본인 싱가포르의 지역성에 입각하여 3가지 요소-정책, 문화, 시장-에 중점을 둔 독자적 모델을 구성하였고, 현지 창업생태계 참여자들과의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이 요소들 간의 상호연계성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른 요소들인 금융, 지원, 인적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먼저 싱가포르 정책당국의 스타트업 관련 규제를 살펴보았다. 싱가포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에서의 창업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였고, 네거티브 규제를 통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는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기술 창업은 그 특성상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이 효과적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수적이다. 이는 싱가포르 창업 정책의 방향성이 기술과 혁신적 창업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형 벤처 캐피털이 정책적으로 활성화되어있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scale-up)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한국의 정책적 개선점으로는 금융규제와 금산분리 기초의 완화가 존재한다. 세부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수준을 넘어서 혁신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안을 제안한다거나, 아이디어를 비롯한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카피캣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규제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남아있음을 역설하였다.

창업생태계의 문화적 측면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인프라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개의 싱가포르 대학인 NUS, NTU, 그리고 SMU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싱가포르의 대학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실천적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고 일반적인 교육의 과정에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지식 전달의 과정에서 해당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실용적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대학들은 대학 단의 총괄적인 창업 지원기관을 보유하며 신생 학생 벤처가 투자를 받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도록 돕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이후 창업 인프라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렇듯 싱가포르의 대학 발 창업 정책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속성으로서 ‘문화’는 스타트업 진입 단계와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 지원의 경우, 대학 내 창업지원기관의 일원화가 강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이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각 단과대나 관련 기관들의 창업지원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 연계하려는 시도가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시장의 측면에서는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클러스터와 다국적 협력이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클러스터인 Blk71에서는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학교라는 세 주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선순환의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해당 인프라에 속한 스타트업들은 각 주체의 차별화된 역할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클러스터가 가지는 기업가 네트워킹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집적 효과에 따른 풍부한 자금조달의 기회 또한 누리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 스타트업 클러스터는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분산되어 온 민간의 협력을 일원화하고 체계화하여 물리적인 창업 네트워킹을 성공적으로 형성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시장 측면의 글로벌 연결성과 관련하여 국내 스타트업들은 대

개 국내 시장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 투자 유치에 소극적이라는 개선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싱가포르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멘토링, 컨설팅, 기업가 네트워킹,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인프라 측면의 개선이 제안되었다.

이렇듯 본 연구는 한국 창업생태계의 개선을 위해 스타트업 관련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금산분리 기초의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CVC제도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BDC제도의 한계와 개선점을 역설하였다. 또한, 대학은 일원화된 창업지원기관의 지원활동 하에서 학생들이 창업에 관해 갖는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인식을 제고하여 기업가 정신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업가 네트워킹 측면에서는 한국의 창업 인프라가 가지는 개선점과 투자환경에서 글로벌 연결성의 강화를 통한 회수시장의 발전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창업 인프라의 조성,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대학의 창업교육 방향성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연구는 싱가포르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창업생태계 요소 간의 조합과 상호작용을 보다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연구 방법에서 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한계점은 반구조화된 설문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설문 과정과 연구 결과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수를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질문지에서의 답변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형태로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진행될 특정 지역 창업생태계 요소 연구에서 보다 많은 수의 현지 연구 대상 표본을 설정하여 이를 보완한다면 양적 연구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강원희·최인아(2018). 싱가포르 2017: 포스트-리관유 시대의 도전과 과제. *동아시아연구*, 28(1), 83-120.
- 고정민·김정호(2000). 벤처생태계의 형성과 진화. *CEo Information*, 240, 1-23.
- 곽혜진·이무원(2018). 한국과 중국 청두의 창업생태계 비교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5), 131-154.
- 김성욱·조유리·김경훈·민대홍·손가녕(2019).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방안*. 진천: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금융위원회(2019). *‘기업성장투자기금(BDC)’ 제도 도입방안*. Retrieved 20.03.10 from www.fsc.go.kr > downManager.
- 김현창(2018). 제1판교테크노밸리 창업생태계 사례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4), 166-194.
- 나성현·김민식(2015).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TRKO201600010981)*. 진천: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문미성(2019). 창업생태계의 개념과 공간적 함의. *국토*, 456, 6-10.

- 박상용·김연정(2004). 벤처기업 CEO의 기업가 정신, 구성원의 임파워먼트와 벤처 조직유효성의 상호관계.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7(3), 3-29.
- 박재성(2018). 4차 산업혁명시대 창업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창업교육의 유형별 중심. *한국창업학회지*, 13(1), 40-67.
- 백서인(2017).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학의 창업정책 비교: 칭화대학교, 도쿄공업대학, 싱가포르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39(3), 93-116.
- 서울산업진흥원(2018). 2018년 서울시 창업생태계 조사 보고서. Retrieved 20.03.10 from <http://seoulstartuphub.com/upload/board/report/20190603/2121B9947D3444F9BBD52B4C27B7792B.pdf>.
- 손영훈(2014).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서울경제*, 109, 3-13.
-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개선점. *KIF 연구동향*, 23(23), 3-9.
- 이윤정(2014). ASEAN 국가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시사점-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34(2), 115-143.
- 정대용·김영수(2000). 벤처기업의 창업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평가와 벤처생태계 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 163-196.
- 정연승(2016). '한국형 개발모형'이 필요한가. *한국경제포럼*, 9(3), 65-103.
- 조영조(2017). 한중일 홍콩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사회적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부처 합동(2017).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Retrieved 20.03.10 from www.mss.go.kr > cmm > fms > FileDown.
- 창업진흥원(2015). 2015 글로벌 창업동향 보고서. Retrieved 20.03.10 from <http://www.k-startup.go.kr/common/post/detail.do?postSn=68775&mid=30007&bid=709>.
- 창업진흥원(2018).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Retrieved 20.03.10 from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act=view&list_no=1228&tag=&nPage=1.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2018). 해외 혁신창업 생태계 연구. Retrieved 20.03.10 from <http://research.ibk.co.kr/research/board/corporate/details/251191?url=L2JvYXJkL2NvcnBvcnF0ZS9saXN0>.
- Acs, Z. J., Autio, E., & Szerb, L.(2014). National Systems of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Policy*, 43, 476-494.
- Agarwal, R., & Gort, M.(1996). The evolution of markets and entry, exit and survival of firm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8(3), 489-498.
- Almeida, P., & Kogut, B.(1999). Localization of knowledge and the mobility of engineers in regional networks. *Management science*, 45(7), 905-917.
- Baek, S. I.(2017). Comparative Research on University Start-up Policy: Tsinghua University,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and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ases.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9(3), 93-116.
- Bala Subrahmanya, M. H.(2017). Comparing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s for technology startups in Bangalore and Hyderabad, India.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7(7), 47-62.
- Bandera, C., & Thomas, E.(2018). The role of innovation ecosystems and social capital in startup survival.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66(4), 542-551.
- Banerji, D., & Reimer, T.(2019). Startup founders and their LinkedIn connections: Are well-connected entrepreneurs more successfu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0, 46-52.
- Cheah, S., Ho, Y. P., & Lim, P.(2016). Role of public science in fostering the innovation and startup ecosystem in Singapore. *Asian Research Policy*, 7(1), 78-93.
- Chung, Y. S.(2016). Is 'the Korean Model of Development' Necessary?. *The Korean Economic forum*, 9(3), 65-103.
- Cho, Y. J.(2017). A Comparison Study Amongst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China, Japan and Hongkong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vironmen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Cohen, B.(2006). Sustainable valley entrepreneurial ecosystems. *Business Strategy Environment*, 15(1), 1-14.
- Dana, L. P.(1995). Entrepreneurship in a Remote Sub-Artic Commun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 57-72.
- Delgado, M., Porter, M. E., & Stern, S.(2010). Clusters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0(4), 495-518.
- Dodd, S. D., & Anderson, A. R.(2007). Mumpsimus and the mything of the individualistic entrepreneur.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5, 341-360.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2019). Introduction of the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system. Retrieved 20.03.10 from www.fsc.go.kr > downManager.
- Harrison, R. T., & Leitch, C.(2010). Voodoo institution or entrepreneurial university? Spin-off companies. *the entrepreneurial system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UK, Regional Studies*, 44(9), 1241-1262.
-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18). A Study on the Ecosystem of Overseas Innovation Startup. Retrieved 20.03.10 from <http://research.ibk.co.kr/research/board/corporate/details/251191?url=L2JvYXJkL2NvcnBvcnF0ZS9saXN0>.
- Isenberg, D. J.(2010). How to start an entrepreneurial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8(6), 40-50.
- Jung, D. Y., & Kim, Y. S.(2000).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ing Stages and the Ecosystem Model for Venture Companies. *Journal of Social Science*, 2, 163-196.
- Kang, Y. H., & Choi, I. A.(2018). Singapore 2017: Challenges and Prospects in the Post-Lee Kuan Yew Era. *The Southeast Asian Review*, 28(1), 83-120.
- Kauffman, R. J., & Wang, B.(2001). The success and failure of dotcoms: a multi-method survival analysis. *Proceedings of the 6th INFORMS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y, CIST 2001*. FL: INFORMS.
- Kim, H. C.(2018). The Case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in Pangyo Techno-Valley with Policy

- Imp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4), 166-194.
- Kim, S. O., Cho, Y. L., Kim, K. H., Min D. H., & Son, G. N.(2019). *Global Start-up Activation*. Jinche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KISDI).
-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KISED)(2015). *2015 Global Startup Trends Report*. Retrieved 20.03.10 from <http://www.k-startup.go.kr/common/post/detail.do?postSn=68775&mid=30007&bid=709>.
-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KISED)(2018). *Final Report on the Status of Start-up Companies in 2018*. Retrieved 20.03.10 from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act=view&list_no=1228&tag=&nPage=1.
- Koh, J. M., & Kim, J. H.(2000).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Venture Ecosystem. *CEO Information*, 240, 1-23.
- Kuratko, D. F.(2016). *Entrepreneurship: Theory, Process and Practice*. MA: Cengage Learning.
- Kwak, H., & Rhee, M.(2018). Comparative Study of a Startup Ecosystem in Seoul, Korea and Chengdu, Chin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5), 131-154.
- Lee, D. G.(2014). This Week's Theory: The Present State and Improvements of the Entrepreneurship in Korea. *Weekly Financial Brief*, 23(23), 3-9.
- Lee, Y. J.(2014). Multicultural Education of a few ASEAN Member Countries: Focusing on Singapore, Malaysia, and Indonesia. *The Journal of Education*, 34(2), 115-143.
- Livingston, J.(2007). *Founders at work: Stories of startups' earlydays*. CA: Apress.
- Malecki, E. J.(1997).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Dynamics of Local, Region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Harlow: Longman.
- Mason, C., & Brown, R.(2014).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growth oriented entrepreneurship. *Final Report to OECD*, 30(1), 77-102.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17). *A Study on the Ecosystem of Innovative Start-up*. Retrieved 20.03.10 from www.mss.go.kr > cmm > fins > FileDown.
- Moon, M. S.(2019). Concepts and Spatial Implications of Startup Ecosystem. *Planning and Policy*, 456, 6-10.
- Moore, J. F.(1996). *The Death of Competition: Leadership and Strategy in the Age of Business Ecosystem*. NJ: John Wiley & Sons, Ltd.
- Motoyama, Y., & Watkins, K.(2014). *Examining the connections within the start-up ecosystem: A case study of St. Louis*. Retrieved 20.03.10 from <https://www.kauffman.org/entrepreneurship/reports/examining-the-connections-within-the-startup-ecosystem-a-case-study-of-st-louis/>.
- Nah, S. H., & Kim, M. S.(2015). *A study on the efficiency for policy programs to stimulate start-ups (TRKO201600010981)*. Jincheon: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KISDI).
- Neck, H. M., Meyer, G. D., Cohen, B., & Corbett, A. C. (2004). An entrepreneurial system view of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2(2), 190-208.
- Park, J. S.(2018).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Ag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yp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1), 40-67.
- Park, S. Y., & Kim, Y. J.(2004). Relationship among CEO's Entrepreneurship, Empowerment of Member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e Korean Venture Firms.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7(3), 3-29.
- Porter, M. E.(2000).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clusters in a glob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4(1), 15-34.
- Salamzadeh, A., & Kesim, H. K.(2017). The enterprising communities and startup ecosystem in Iran.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11(4), 456-479.
- Seoul Business Agency(2018). *2018 Seoul Startup Ecosystem Survey Report*. Retrieved 20.03.10 from <http://seoulstartuphub.com/upload/board/report/20190603/2121B9947D3444F9BBD52B4C27B7792B.pdf>.
- Shu, R., Ren, S., & Zheng, Y.(2018). Building networks into discovery: The link between entrepreneur network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discover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85, 197-208.
- Son, Y. H.(2014). Korean Startup Ecosystem. *The Seoul Economic Daily*, 109, 3-13.
- Sorenson, O., & Stuart, T. E.(2001). Syndication networks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1546-1588.
- Spigel, B.(2013). Bourdieuan approaches to the geography of entrepreneurial culture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5(9-10), 804-818.
- Spigel, B.(2015). The Relational Organiza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1-23.
- Spigel, B., & Harrison, R.(2018). Toward a process theory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12, 151-168.
- Startup Genome(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 Retrieved 20.03.10 from <https://startupgenome.com/all-reports>.
- Stemler, A. R.(2013). The JOBS Act and crowdfunding: Harnessingthe power-and money-of the masses. *Business Horizons*, 56(3), 271-275.
- Stuart, T., & Sorenson, O.(2003).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spatial heterogeneity in founding rates and the performance of biotechnology firms. *Research policy*, 32(2), 229-253.
- Weiblen, T., & Chesbrough, H. W.(2015). Engaging with startups to enhance corporate innov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7(2), 66-90.

A Study on Singapore Startup Ecosystem using Regional Transformation of Isenberg(2010)*

Soyeon Kim**
Minhyung Cho***
Mooweon Rhee****

Abstract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sight, innovative business models utilizing new technologies are emerging, and startups are enjoying an abundance of opportunities based on the agility to respond to disruptive innovations and the opening to new technologies. However, what is most important in creating a sustainable start-up ecosystem is not the start-up itself, but the process of research-start-investment-investment-the leap to listing and big business-in order to build a virtuous circle of startups that leads to re-investment. To this end, the environment created in the hub area where start-ups were conducted is important, and these material and non-material environmental factors are described as being inclusive by the word "entrepreneurial ecosystem."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entrepreneurial ecosystem through the study of the interaction of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start-up ecosystem and the relationship of ecosystem participants in Singapore. Singapore has been consistently mentioned as the top two Asian countries in assessing the start-up environment and business environment. In this process, six elements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presented by Isenberg(2010)-policies, finance, culture, support, human resources, and market-are the best frameworks for analyzing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terms of well encompassing prior studies related to entrepreneurial ecosystem elements, and a model of regional transformation is formed focusing on some elements to suit Singapore, the target area of study. By considering that Singapore's political nature would inevitably have a huge impact on finance, Smart Nation policy was having an impact on university education related to entrepreneurship, and that the entrepreneurial networks and global connectivity formed within Singapore's start-up infrastructur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ingapore's start-up's performance, researches needed to look more at the factors of policy, culture and market. In addition, qualitative research of participants in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wa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internal interaction of the elements of the start-up ecosystem, so the semi-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by visiting the site. As such,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the local entrepreneurial ecosystem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focused on policies, culture and market elements of Singapore's start-up ecosystem, and intend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regulations related to start-ups, the role of universities and start-up infrastructure through comparison with Korea. This could contribute not only to the future research of the start-up ecosystem, but also to the creation of a start-up infrastructure, boosting the start-up eco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rientation of the start-up education in universities.

Keywords: Startup, Startup Ecosystem, Startup Ecosystem Framework, Entrepreneurship, Startup Infrastructur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Yonsei School of Business Venture, Innovation & Startup Program (YVIP)

** First Author, Graduate Student,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sarahkim_15@naver.com

*** Co-Author, Senior Staff, DB Financial Investment Co., Ltd., rosaacho@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mooweon@yonsei.ac.kr